

# 2019 대한민국 창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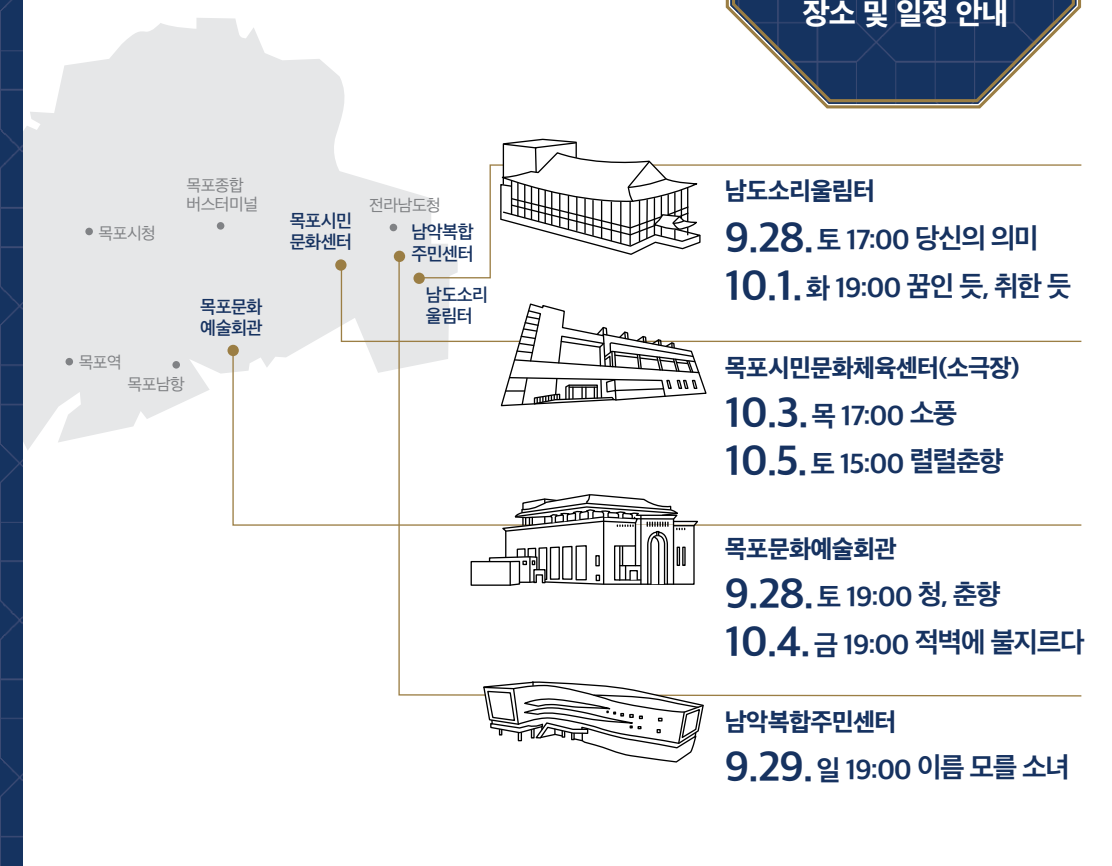
## 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감수성으로 빛나는 이 시대 최고의 창극 무대들

재단의 지원으로 제작하여 2019대한민국창극제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모두 다섯편으로, 창극운동에 아주 중요한 정점을 찍는 작품들이다. 소리꽃 가객단의 <적벽에 불지르다>는 판소리 <적벽가>를 현대적 무대에 적응시켜 만든 스펙타클한 작품이다.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창극오페라의 <청>은 국립창극단의 베스트셀러 창극인 <청>을 창극배우와 오페라배우를 함께 출연시켜 만든, 한국적 오페라의 시금석이 될 작품이다. 우리소리예술단의 <소풍>은 아름다운 정경을 판소리 창극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전주판소리합창단의 <이름 모를 소녀>는 작곡가가 처음부터 참여하여 완성도 높은 창극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류가양파운데이션의 <렬렬춘향>은 1인이 이끌어가는 창극 춘향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경연작품 다섯편과 함께, 초청작품으로 전남도립국악단의 <당신의 의미>와, 국립국악원의 <꿈인 듯, 취한 듯> 두편이 공연된다. 9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주까지 7편의 묵직하고 실험적인 창극이 목포의 주된 극장에서 공연되면서, 대한민국 창극축제의 의미심장한 출발을 알릴 것이다.

고려대학교수, (前)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명대

# 2019 대한민국 창극제

## 장소 및 일정 안내



- 남도소리올림터**  
9.28. 토 17:00 당신의 의미  
10.1. 화 19:00 꿈인 듯, 취한 듯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소극장)**  
10.3. 목 17:00 소풍  
10.5. 토 15:00 렬렬춘향
- 목포문화예술회관**  
9.28. 토 19:00 청, 춘향  
10.4. 금 19:00 적벽에 불지르다
- 남악종합주민센터**  
9.29. 일 19:00 이름 모를 소녀

목포문화예술회관 전남 목포시 남농로102 Tel. 061-270-4038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전남 목포시 부주로312 Tel. 061-270-8376  
 남도소리올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22 Tel. 061-981-0280  
 남악종합주민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40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남개발빌딩 13층  
 Tel. 061-280-5800 / Fax. 061-280-5850 http://jact.or.kr/

# 2019 대한민국 창극제

## 2019.9.28(토)~10.5(토)

목포문화예술회관 ·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남도소리올림터 · 남악종합주민센터

주최 **전라남도** 주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가장 한국적인 종합예술 창극의 신명 지피는 한 판 축제

2019 대한민국 창극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남도문예르네상스 비교우위 자원인 판소리를 바탕으로 탄생한 창극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창극 축제이다.



### 판소리 본고장 전라남도가 창극의 내일을 엮는다

전라남도는 창극을 비롯한 예향 전남의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발을 내디딘 '2019 대한민국 창극제' 무대에 오르는 공연 작품의 큰 울림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 창극, 판소리 등 소리문화에 관심을 높이고, 그 전통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



### 전국 유일무이의 창극제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 기대합니다

'2019 대한민국 창극제'는 판소리와 창극의 대중화를 위해 민간단체 또는 개인의 창작을 장려하는 전국 유일무이한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계기로 전국의 국공립예술단체, 민간단체, 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과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대표 예술축제로 발굴·선점하는 거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립국악원장 임재원

# 초청작 2편 경쟁작 5편을 선보이는 7일간의 창극 릴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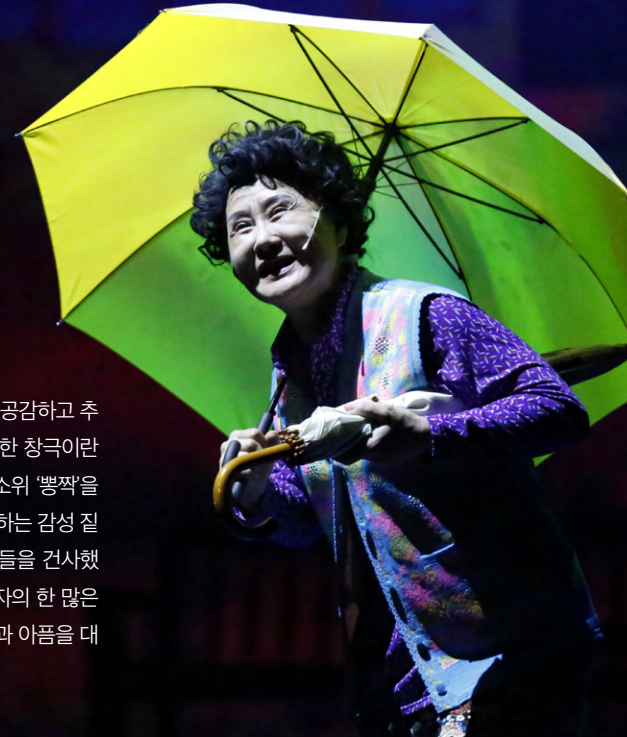
초청작 전남도립국악단 <당신의 의미>  
국립국악원 <꿈인 듯, 취한 듯>

경쟁작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청, 춘향>  
전주판소리합창단 <이름 모를 소녀>  
우리소리에술단 <소풍>  
소리꽃 가객단 <적벽에 불지르다>  
류가양파운데이션 <렐렐춘향>

초청작  
9.28.  
토 17:00  
남도소리올림터

## 당신의 의미 전남도립국악단

버스안내양, 함재비, 마차집 등 5060세대라면 극히 공감하고 추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무대 전반에 그려냈다. 또한 창극이란 범주 안에서 과감히 벗어나 60~70년대 유행하던 소위 "뽕짝"을 극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때 그 시절 추억에 잠기게 하는 감성 짙은 무대를 선보인다. 굴곡진 세월을 견뎌오며 가족들을 건사했던 건 돌아온 것은 외로움과 고독감 뿐인 주인공 헤자의 한 많은 인생사를 통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네 어머니의 삶과 아픔을 대변하고자 한다.



초청작  
10.1.  
화 19:00  
남도소리올림터

## 꿈인 듯, 취한 듯 국립국악원

분장실 화장대 앞에 여류 명창. 가르마를 반듯하게 갈라 넘긴 쪽머리에 어울리는 한복을 입고 앉아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분칠을 두드리며 끊임없이 판소리 사설을 중얼거립니다. 그녀가 평생을 받쳐 목 놓아 부른 판소리 속 인물들이 거울 저편에 어른어른 되살아납니다. 춘향, 몽룡, 별주부, 토끼, 용왕, 흥부, 놀부, 조조, 심봉사, 심청 그 외에 수많은 등장인물 소리 길을 따라 흥겹게 장단을 타고 넘나들며 꿈인 듯 취한 듯 우리에게 옵니다.



경쟁작  
9.28.  
토 19:00  
목포문화예술회관

## 청, 춘향 (사)한국사회문화예술진흥원

창극오페라 <심청>은 판소리 <심청가>를 토대로 2006년 초연된 이용탁 작곡 창극 <청>을 근간으로 삼되, 새롭게 아리아, 합창을 작곡하고, 한국적 특색을 가진 춤이 한데 어우러진 한 편의 오페라이다. 창극 <청>은 국립창극단에서 제작하여 130회 공연과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김홍승 연출, 이용탁 작곡)에서 일부가 초연된 바 있는데, 이번에 전막을 이용탁이 새롭게 작곡하여 무대에 올린다.



경쟁작  
9.29.  
일 19:00  
남악북합주민센터

## 이름 모를 소녀 방수미와 전주판소리합창단

삼백석에 깔려 인당수로 뛰어든 때의 심청은 오롯이 아버의 행복만을 위해서 뛰어든 것일까. 그 사실 안에 얼마나 많은 심청의 독백과 지문이 숨어 있는지 인당수에 빠져보고 나서야 내 눈에 빼곡히도 보였다. 우리는 인당수로 뛰어 들어야 한다. 그곳은 죽음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도 아니다. 나의 인당수는 그저, 내 안에 존재하는 동그란 샘물이다. 우리는 이 샘물이 마르지 않게 늘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귀하게 보물같이 여겨야 한다.



경쟁작  
10.3.  
목 17:00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

## 소풍 우리소리에술단

동문수학했으나 일생 순수예인으로 살아온 한 남자와, 그에게 패배한 열등감으로 상업적인 성공에만 치중하는 남자. 그리고 친구의 조화를 이루며 시대가 원하는 예인으로 맥을 이어가는 그들의 자식들을 통해 험난한 예술의 길을 곳곳이 지켜나가는 명인들의 이야기이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들이 전수자를 찾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금, 본 작품을 통해 전통 예인들에 대한 예우와 관심을 제고하는 한편, 재주를 뛰어 넘은 감동은 레벨보다 진정성에 있는 것임을 주지하고자 한다.



경쟁작  
10.4.  
금 19:00  
목포문화예술회관

## 적벽에 불지르다 소리꽃 가객단

판소리 적벽가를 새롭게 재창작한 창극으로, 집단적 통성발성과 현란한 부채 군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젊은 에너지와 대형뮤지컬에 뒤지지 않는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에게 강력한 미적 쾌감을 전달하는 작품이다. 화려한 의상과, 영상 등 소리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판소리 본연의 모습이 묻혀가는 오늘날 창극계의 현실 속에서, <적벽에 불지르다>는 오직 소리와 부채, 몸짓으로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판소리의, 판소리"에 의한, 판소리를 위한" 공연으로, 창극의 새로운 전형 창조를 목표로 한다.



경쟁작  
10.5.  
토 15:00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소극장

## 렐렐춘향 류가양파운데이션

판소리 창본 강산재 춘향가를 원작으로, 류가양이 직접 각색과 연출을 맡아 독창적이고 세련된 스타일로 재탄생시킨 모노판소리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우리 전통 판소리에 피아노, 첼로, 기타, 베이스, 전통 타악의 연주가 어우러져 모던하면서도 서정적인, 류가양 만의 색깔을 선보인다. 두근대고 설레며 사랑하다 헤어지고, 애타게 기다리며 렐렐히 지키려 했지만 놓치고야 말았던, 그래서 렐렐하고 싶은 여인의 마음. 아직 여기에 있다. 우리들의 춘향기도 아직 여기에 있다.

